
모란이 피기까지는
김영랑

Study Title 문학의 미적기능

1. 모란이 피기까지는 | 김영랑

↳ 시문학파 · 순수시 계열 (1930년대)

→ 언어와 리듬 → 세련되고 아름다운 멋 ↔ 대비 민요시, 사상시, 저항시 (1920)

↳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 (소중한 가치)

모란이 피기까지는

↳ (모란) 삶의 전부

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

↳ 아름다움, 소망, 희망

↳ 부드러운 어감 (운율)

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

↳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 (강각적→청각)

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

오월 어느날 그 하루 무덥던 날

모란 ↳ 보람X, 봄 → 절망적 현실

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

↳ 인생 전체의 상실감

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

젖으니 → 젖느니

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← 부드러움 (서문학적 특징)

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

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

시험

찬란한 슬픔의 봄을

↳ 모란이 피기 때문 ↳ 모란이 지기 때문

→ 역설법, 오순 형용

모란이 피기까지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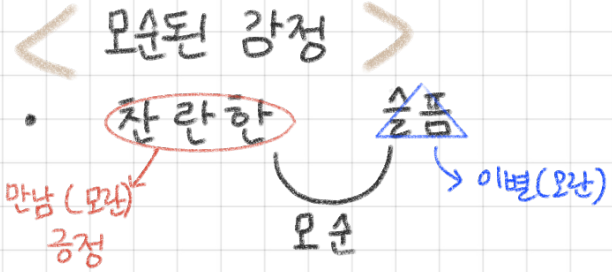
도치

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

Study Title 모란이 피기 까지는

1. 시

- 갈래 : 자유시(형식), 서정시(내용)
- 성격 : 의이적, 탐미적, 낭만적, 상징적
- 제재 : 모란
- 주제 : 모란이 피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
- 특징 : 수미상관구조 (첫연, 마지막연)
  역설법과 도치법의 사용
 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



2. 화자의 정서

- 1~2행 :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
- 3~10행 : 모란이 떨어져 슬픔과 상실감
- 11~12행 :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

화자에게 모란의 의미
간절함, 소망과 소망의 대상
삶 보람

3. 문학 미적기능

- '-ㄹ테요'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 형성
- 수미상관의 사용을 통해 주제강조와 여운 운율형성
- ㄴ,ㄹ,ㅁ,ㅇ 유성음 울림소리를 사용 부드러운 느낌
- 모란이라는 말의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

미적기능 ↑ 요인

4. 은전 한 잎

- 내용 면 → 다른이들에게는 하찮은것이 거지에게는 소중한것이 될수도 있다.
  →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
- 서술방식 면에서 → 객관성 획득, 주관적판단X
  → 상상력 자극

Study Title 종정리

(1) 문학의 미적 기능

- 형식의 아름다움

– 치밀한 구성, 언어의 리듬감,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표현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

- 내용의 아름다움

– 새로운 사실의 인식과 발견이 주는 재미와 감동 등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

↓

문학은 정서적, 미적으로 삶을 고양하는 기능을 함.

→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문학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난다.